

## 1 水陸二十萬里周遊記

하루는 朝光 編輯者를 만났더니 이 題目을 주면서 喜怒哀樂을 勿論 하고 半 生의 지난 바를 五六回에 連載할 分量으로 써달라는 力勸이 있었다. 나는 이 勸告를 받고 이것이 原稿 不足을 채우기 爲함인가 혹은 묘사인 雜誌에 “나의 半生과 波瀾 苦鬪記”라고 하는 이런 類 似한 題目으로 某某의 글 이 더러 보이더니 아마 이 것도 雜誌界의 한 流行이나 아닌가 생각하였 다. 編輯者인 鷺山 李殷相氏는 나의 小學 同窓이라 나의 過去를 多少 짐작 하는 데에서 雜誌 原稿거리가 되리라고 이 問題를 준 듯도 하다. 左右間 에 생각 나는 대로 적어 드리기를 許諾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順次 로 쓰고자 한다.

- 一. 家庭 形便과 朝鮮內의 教育和 西間島 行.
- 二. 滿洲와 西伯利亞에서 放浪生活하던 때와 그 뒤.
- 三. 中國 上海에서 留學하던 때와 그 뒤.
- 四. 獨逸 伯林에서 留學하던 때와 그 뒤.
- 五. 英國 倫敦에서 留學하던 때와 그 뒤.
- 六. 歸國 途中에 米國 視察하던 때와 그 뒤.

### 1.1 一. 家庭 形便과 朝鮮內의 教育和 西間島 行.

내가 어렸을 때에 國內의 生活을 돌아본다면 나의 家庭形便과 教育을 말하게 된다. 慶尙南道 宜寧郡 芝正面 杜谷리는 나의 生長한 鄉里이다. 이 마을 앞은 바로 洛東江과 南江의 合流하는 곳으로 風景이 아름답고 또 名勝 古蹟도 많다. 忘憂堂 郭再祐 將軍의 壬亂 戰勝 報德碑閣이 있으며 越便 咸安 땅에는 趙潤松 先生의 舍江亭이 있으니 내가 어릴 때에 동무들과 같이 뛰놀던 印象 깊은 곳이다.

나는 不幸히도 세 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寡母와 庶母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다. 나는 同復 八男妹의 끝으로 형님 다섯분과 누님 두분을 위로 모시었고 손 아래로 누이동생 둘이 있었다. 내가

1 자라날 때에 내 집은 農業으로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農家로서 약  
2 二十名の 食口가 한 집에 있으니 사람이 貴하게 보이지 아니하였다.  
3 그런 形便이라 집안에 선비가 많이 있었건마는 나에게는 本格的으로  
4 글을 읽힐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晝耕夜讀으로 낮에는 소  
5 먹이고 밭매고 나무하는 모든 일을 나의 힘이 미치는 대로는 다 하게  
6 되었다. 우리마을 의 書堂은 우리 밭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밭에서  
7 김을 매다가 점심때에 學童들이 점심 먹으러 간 틈을 타서는 그 書  
8 堂에 들어가서 글씨가 쓰고 싶어서 남의 紙筆墨을 내어놓고 體面에  
9 흰 종이에 쓴 수 없고 쓰고 남 은 사이줄에만 까맣게 써 놓고 나  
10 온다.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 내가 다니어 간 것을 안다. 이런 式으로  
11 밤에나 낮에나 틈을 타서 글을 몇 字씩 배우는 形便이었다.

12 詩童으로 擅名, 나는 이제도 詩에 趣味는 많다. 그러나 詩人이 되  
13 려고 特別히 努力하여 본 일은 없다. 내 나이 八歲 때 꽃 피고 잎  
14 돋는 따듯한 봄철이었다. 하루 저녁에는 斗南齋 서당에 갔더니 여러  
15 사람이 詩를 짓는다고 韻字를 내었는데 지금에 기억되는 것은 “文”  
16 자이다. 詩字를 내어놓고 글을 읊으면서 서로 부르고 쓰고 春興에 겨  
17 우는 것을 본 나는 절로 興이 나서 썩 나서면서 “내 글을 쓰시오”  
18 하니 여러 사람은 철없는 소리를 한다고 도리어 나무래기만 하였다.  
19 그러나 나는 기어이 쓰라고 하니 그러면 부르라고 許諾하기에 “春來  
20 千山和氣 一日人人作文”이라고 부르니 座中の 여러 사람은 웃으면서  
21 “이 아이가 六言의 賦를 지었구나”하면서 稱讚하였다. 그 後의 數年  
22 동안에도 나는 如前히 晝耕夜讀으로 工夫를 하였다.

23 또 그 다음 해의 봄날에는 우리 집 뒤에 있는 우리 집안 齋室  
24 인 永慕齋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詩를 짓는데 기억되는 것은 “方”字  
25 韻이다. 나는 卽景詩로 “芳草長岸詩四句, 開花幽谷興萬方”이라고 부  
26 르니 글을 받아쓰던 사람이 붓대를 멈추고 앉았는 態度는 無意味 不  
27 成文한 글이므로 쓰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다. 그 때에 그 옆에서 보던  
28 글을 第一 잘하는 어른 한 분이 말하기를 “쓰게! 오늘 여러글 가운데  
29 에는 이 글이 第一 잘 되었네” 하였다. 이 글로 말미암아 나는 詩才가

1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력저력 내 나이 十餘歲가 되던 어느 해  
2 봄날에는 또 斗南齋에 서 冠童 數十人이 모여서 詩會를 열고 詩  
3 를 짓는다. 이 書堂 앞에 있는 밭에서 김을 매던 나는 호미를 놓고  
4 들어가서 韻字를 물은뒤에 조금 있다가 여러사람의 글을 다 쓰도록  
5 기다리어서 내 글도 쓰게 되었다. “琴”字 韻을 달았는데 그날에 다른  
6 사람은 모두 抱琴이나 彈琴의 뜻으로만 달았다. 勿論 글이란 것은 거  
7 짓말이 많은 것이지만 그 때에 事實인즉 거문고 樂器의 그림자도  
8 없었다. 나는 “十里風景生時句 百年憂樂在書琴”이라고 하니 그 때에  
9 座中은 모두 눈이 둥글어졌다. 이것은 한갓 韻字를 남과 달리 달았다  
10 는 것보다도 어린 아이의 글이 아니라 아주 老成한 사람의 글이라고  
11 더욱 놀랜 것이다. 나 는 뼈가 굵어짐을 따라 農軍의 責任이 무거워  
12 졌다. 논 밭을 갈고 서리며 김 을 매고 곡식으로 비고 걸우며 지계를  
13 지고 산과 들어가서 나무와 풀을 비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밤에는  
14 새끼를 꼬며 신을 삼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된 나에게는  
15 夜讀이란것도 許諾되지 못하였다. 그러니 어느 틈에 많은 글을 읽었  
16 으리오마는 그 때 韓國 末年인 隆熙 時代의 每日申報쯤은 뜯어 읽을  
17 정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洞里에 共同으로 보는 이 每日申報는 힘써  
18 읽었다. 이 新聞이 나에게 세상 消息을 傳하게 되었으며 또 많은 衝  
19 動을 주었다. 그 結果는 나로 하여금 家庭을 떠나게 한 것이다.

20 隆熙 四年 庚戌年은 韓日 合併이 되던 해이다. 이 해 陰曆 正月  
21 보름날에 十六歲의 총각이 붓짐을 싸지고 伯兄이 쓰시던 서울 가는  
22 路程記만 쥐고 가만히 집을 떠나서 無錢徒步로 서울을 目標하고 가  
23 다가 第 2日에 仲兄에게 붙잡히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  
24 서 三個月 동안이나 또 農軍의 生活를 하게 되었으니 속으로 不平은  
25 漸漸 커졌다. 그래서 마침내 第 2次의 逃亡을 꾀하였다. 이번에는 方  
26 向을 달리하여 南方으로 六十里되는 馬山港으로 가게 되었다. 陰曆  
27 四月初 어느 새벽에 또 單붓짐을 싸지고 가만이 집을 떠나서 當日  
28 에 馬山港에 닿아서 우리 洞里 사람의 指定 旅館인 崔元則氏 집에  
29 主人을 定하고 그 다음날에 예수 教會 의 經營인 私立 昌信學校를

1 찾아가서 땅았던 머리를 깎고 入學을 하였다.

2 十餘日 뒤에 우리 마을 사람이 장을 보러 왔다가 偶然히 나를 만  
3 나보고 놀래면서 하는 말이 “너를 잃은 너의 집에는 이제 난리가 났  
4 다”하며 父兄의 크게 걱정하시고 계시는 消息을 傳하였다. 나를 만나  
5 본 이분이 돌아가서 나의 消息을 우리 집에 傳한 그 다음날에 伯兄은  
6 곧 나를 찾아오시었다. 나는 學校에서 主人집으로 돌아와서 伯兄에게  
7 절을 하니 깎은 머리를 보시는 伯兄은 기가 막히어서 얼굴이 푸르게  
8 될 뿐이오 한 마디 말씀도 못하시었다. 그 다음날에야 비로소 말씀을  
9 하시되 “이놈아 네 신세만 亡하였으면 괜찮지마는 우리 全義 李氏가  
10 서울에서 落鄕한지 四百餘年에 宜寧 고을에서 三大姓의 하나로 행세  
11 하고 지나오는데 이제는 너 때문에 어디 얼굴을 들고나서서 사람행  
12 세를 할 수 있겠나, 다시는 머리를 깎지 말고 길러서 땅아 가지고  
13 집으로 돌아오너라”하시고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시었다. 그 뒤에 며  
14 칠을 지나서는 아버지께서 昌申學校 마당으로 들어오시면서 啓贊(그  
15 때 나의 이름)을 찾으시었다. 教室에서 運動場으로 나온 나는 깎은  
16 머리를 숙이어서 절을 하였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對하신다. 그리고  
17 主人집에 돌아가셔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역시 “이 뒤에는 네가 다시  
18 머리를 깎지 말고 길러 가지고 故鄕으로 돌아오너라” 하시고는 그  
19 이튿날에 집으로 돌아가시었다.

20 그리고 어느덧 여름 放學이 되어서 집으로 갈 때에는 머리를 뺄  
21 뺄히 깎고 갔더니 나의 態度를 보신 父兄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  
22 었는지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었다. 나는 放學 동안에는 그 前과 같이  
23 밭과 논이 풀을 매며 지계를 지고 꼴을 비러 다니었다. 그러나 날마  
24 다 一定한 때에는 내 가 글을 읽던 書堂 斗南齋에 가서 學童들에게  
25 算術, 理科, 國語 等 學科를 아는 대로 가르치어 주었더니 이제는 온  
26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만 亡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까지  
27 버리어 준다” 고 야단을 친다. 그러 는 동안에 放學其間은 다 지나  
28 갔다. 별 수 없이 또 父兄의 命을 어기고 馬山港 昌申學校로 가고  
29 말았다 家庭의 힘이 없을 뿐 아니라 本來 깎은 머리를 기를 때까지만

1 學費를 도와주시겠다고 約束하신 父兄이라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 하  
2 시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별 수 없이 仁丹匣(至今의 銀丹)을  
3 들고 거리로 旅館으로 돌아다니면서 苦學生의 本色을 나타내게 되었  
4 다. 그래서 이력저력 昌申學校에서 普通科 一年과 高等科 一年으로  
5 二年동안 修業을 하였는데 그 때에는 普通科의 學科도 專門學校의  
6 性格을 가지었다. 예를 들면 法學通論, 交際新禮, 孟子, 論語들이 그  
7 것이다. 學生들의 나이는 三十 歲나 되는 사람이 드물지 아니하였다.  
8 過渡期의 教育인 것만큼 모든 것이 畸形的으로 되었다.

9 여러 가지 形便이 나로 하여금 오래 동안 馬山港에 얽드려 있지  
10 못하게 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時代의 衝動을 받은 것이니 곧  
11 東洋 政局 의 大變動이 생긴 것이다. 庚戌 韓日 合併과 中國 辛亥革  
12 命이 그것이다. 壬子年 四月에는 또 혼자 單붓짐을 싸서 지고 西間島  
13 로 가는 길을 定하고 汽車로 舊馬山驛을 떠났다. 그러나 무슨 旅費의  
14 準備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람은 뜻을 세우고 힘쓰면 그것을  
15 이룬다는 一種의 迷信 같은 自信을 가진 것뿐이다. 그래서 먼저 겨우  
16 大邱까지 가서 李一雨氏를 찾아 車費의 補助를 받아가지고 金泉 땅  
17 에 사는 一家인 李直魯氏를 찾아 그분에게서 京城까지 가는 車費를  
18 얻어 가지고 秋風嶺驛에서 京城驛까지 타고 갔다. 서울에 와서는 남  
19 대문 가까이 조그마한 旅館에 主人을 定하고 그 때에 普成 專門學校  
20 夜學 商科에 다니던 申性模氏를 찾아 만나서 나의 滿洲行을 말하였  
21 으나 申氏도 나의 旅費 補助까지는 힘이 없었다. 별 수 없이 無錢  
22 徒步 旅行이라도 서울을 떠나서 北行하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한  
23 旅館에 든 사람으로 慶南 彦陽에 산다는 辛氏 한 분이 西間島 視察을  
24 떠나는데 獨行이 되어서 어렵다 하며 자기가 旅費를 貸與할 터이니  
25 同行을 하자기에 어찌나 반갑든지 곧 그리 하자고 對答한 뒤에 그  
26 날로 그 이와 함께 京城驛을 떠나서 安東縣으로 向하였다.

27 여기에 와서 西間島로 들어가는 路程의 指導를 받아 가지고 가  
28 게 되는데 그 때에 마침 江原道에서 오는 移住民 몇 집이 西間島로  
29 가는 것을 만나 서 同行하게 되었다. 그들은 中國 사람이 木船 두

1 채에 數十名이 타고 가게 되었으나 그 가운데는 中國 말을 한 마디  
2 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人情 風俗이 다른 中國 사람이 사는 天地  
3 로 가는 우리에게 적지 아니한 困難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  
4 어려운 사람들이 同行이 되었으므로 通譯이 나 引導者를 데리고 갈  
5 形便도 못된다. 그러므로 나는 誠信泰(旅館)에 계신 徐世忠氏에게서  
6 “관화서경(官話捷徑)”이란 漢語 冊을 사 가지고 배에 올랐다. 이제  
7 는 木船 두 채가 安東縣 埠頭를 떠나서 威化島를 바라보고 鴨綠江을  
8 거슬러 올라간다. 아흐레만에 渾江口에 내리어서 陸路로 걸어서 사  
9 흘만에 懷仁縣(이제는 桓仁縣) 城內에 到着되어 朝鮮 사람의 旅館에  
10 主人을 定하니 때는 三月 二十日頃이었다.

11 나로서는 그 때 鴨綠江 船路에서 얻은 느낌이 重大한 것을 이제  
12 다시 認識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 때에 느낌이 내가 朝鮮語  
13 研究에 關心하게 된 첫 出發點이오 또 朝鮮語 整理로 한글 맞춤법 統  
14 一案과 外來語 表記法 統一案과 標準語 查定과 朝鮮語 大辭典 編纂  
15 等の 일에 全力을 바치게 된 動機이다. 이 船行 中에 하루는 一行이  
16 平北 昌城땅인 鴨綠江邊 한 農村에 들어가서 아침밥을 사서 먹는데  
17 朝鮮 사람의 밥상에 는 떠날 수 없는 고추장이 밥상에 없었다. 一行  
18 中의 한 사람이 고추장을 請하였으나 고추장이란 말을 몰라서 그것  
19 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形容을 하였더니  
20 마지막에는 “웁소 덩가지장말씀이오”하더니 고추장을 가지고 온다.  
21 “사투리로 말미암아 日常生活에 많이 쓰이는 고추라는 말을 서로  
22 통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 標準語 查定은 二十 五年後에  
23 와서 問題를 삼아 解決하 게 되었으니 우리는 國語에 대한 關心이  
24 一般으로 不足한 것을 아니 느낄 수 없다.